

【 2017.11.22(수) 강원일보 】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22일 오전
11시 도회 회의
실에서 제5차 운
영위원회를 개
최.

【 2017.11.22(수) 강원도민일보 】



오인철
대한건
설협회
강원도
회장은

22일 오전 11시 도
회 회의실에서 열
리는 제5차 운영
위원회를 주재한
다.

건협 강원도회, 오늘 5차 운영위원회 개최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22일 도회 회의실에서 제 5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도 건설업계 현안과 도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60만개 신규고용 창출... 1위

건설업, 역시나 '일자리 일등공신'

순증규모만 10만개 달해
전체 증가분 절반 책임져
SOC 삭감 등 건설 옥죄는
일자리 정부 '모순' 입증

지난해 건설업이 전 산업을 통틀어 가장 많은 총 6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순증 규모 역시 건설업만 유일한 두 자릿수(10만개)를 기록하며 국내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약 절반을 책임졌다.

부동산 및 SOC 등 건설투자를 '옥죄는' 형태의 정부 정책은 고용 창출면에서 큰 '실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일자리는 총 2323만개로, 2015년 2301만개 대비 22만개(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별 구성비를 보면, 제조업이 전체의 20.5%(476만개)로 가장 많고 이어 도매 및 소매업 303만개

2016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13.0%)와 건설업 209만개(9.0%) 등이 뒤를 이었다.

일자리 형태별로 보면 지속일자리 비중은 제조업(74.9%)에서 타 산업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신규 일자리 비중은 건설업(28.9%)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설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서 타 산업 대비 월등한 면모를 보였다.

지난 한 해 총 361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는데, 건설업은 전 산업 중 최대인 60만개(16.8%)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신규 일자리에서 소멸 일자리를 뺀 순증 규모 역시 건설업만 전업종 유일하게 두 자릿수인 10만개나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일자리 증가분(22만개)의 약 절반에 육박한다.

신규 일자리 비중 (단위: 개)

총 361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이어 도매 및 소매업과 제조업이 각각 57만개(15.8%)와 54만개(14.9%)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순증 규모는 건설업에 크게 못 미쳤다. 도매 및 소매업이 6만개의 순증을 기록했으나 제조업은 무려 68만개의 일자리가 소멸돼 합계 14만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건설업 일자리의 증감 배경을 보면, 기업 생성으로 약 12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고 사업 확장을 통해 약 49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어진 부동산경기 호황과 지속적인 신규 SOC 사업을 통해 공사현장을 늘리면서 꾸준히 고용창출을 이어갔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조선·해운 등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을 비롯, 제

조업 일자리 감소가 뚜렷했으나 부동산 등 건설시장 호조세에 힘입은 건설업이 그 공백을 충실히 메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 하반기부터, 또 내년부터는 각종 정부대책 등으로 인해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고 SOC 예산 축소 등에 따라 건설업 고용창출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와 시장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정책이나 예산 등 재정투자 방향에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통계치는 건설업이 국내 신규 일자리의 절반을 생산해내며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성장에도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자리 정부라 자부하는 정부가 이런 객관적 통계치조차 도외시한 채, SOC 예산을 삭감하는 등 건설투자를 옥죄는 것은 큰 실기를 범하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업계, 포항 지진피해 구호 발벗고 나섰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배인호 건협 경북도회장 등
성금 1억5000만원 전달
별도 복구 지원팀도 구성

건설업계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를 위한 구호 활동에 본격 나섰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1일 포항시청에서 포항 지진 피해 구호 성금 1억5000만원을 포항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교육원,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에서 각각 마련한 성금이다.

1억5000만원은 재난구호협회를 통해 포항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박



왼쪽부터 양정배 경북도청 건설도시국장, 박문하 경북도의회 의원, 박명재 국회의원,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이강덕 포항시장, 배인호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장, 전병국 건설기술교육원장, 권혁찬 건협 경북도회 운영위원이 성금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명재 국회의원, 박문하 경북도의회 의원, 전병국 건설기술교육원장, 배인호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 권혁찬·김창근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포항은 지난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입은 주택 피해만 해도 8200건(21일 기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계속된 여진으로 피해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별도의 지원팀을 구성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주현 건설협회 회장은 전달식에서 “포항 지진 피해복구 지원팀을 구성해 건설업계 차원에서 지진으로 파손된 건축물 보수·보강 공사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인력·장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항시와 연

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인호 건설협회 경북도회 회장 역시 “지난해 경주, 올해 포항 등 경북도에서 이런 재난이 발생해 같은 지역민으로 아픔이 크다”며 “포항시가 어서 빨리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시민들도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포항=정석한기자 jobize@

씨앤씨종합건설, 삼척연구시설 건설공사 수주

씨앤씨종합건설(대표 손성연)이 삼척 연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21일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을 적용해 집행한 이공사 종합심사 결과 씨앤씨종합건설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해 통보했다. 씨앤씨종합

건설은 모두 30개 건설사가 투찰에 나선 가운데, 예정가격 대비 85.713%인 320억 7629만4001원을 적어내 종합심사 1위를 차지했다.

씨앤씨종합건설은 50% 지분을 갖고 동천건설(강원·엄정인·35%), 청산종합건

설(경남·이운환·15%)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소방전문 분담이행은 동일전력(강원·박희홍)이 맡는다.

이 공사는 강원도 삼척시 교동 일원에 건물 7개동을 신축하고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건물 신축에 따른 기계설비, 옥외토목 및 부대시설 공사가 포함돼 있다.

한상준기자

대금중건 부산 기장 정관하수관로 신설 '적심 1순위'

대금중건건설(대표 최인식)이 '하수관로 신설사업(정관제척지일원)' 수주에 바짝 다가섰다.

21일 조달청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

요로 집행한 하수관로 신설사업 개찰에서 대금중건건설이 예정가격 대비 80.004%인 85억1304만3000원을 적어내 적격심사 1위에 올랐다.

피엔지건설(대표 홍덕기)은 조달청이 같은 날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 수요로 집행한 호명초등학교(가칭) 신축공사 개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81.399%인 103억1257만4000원을 적어내 적격심사 1위에 올랐다.

한상준기자

어려운 '건설업 실질자본금 관리' 쉽게 하는 요령

건설사들이 실질자본금을 갖춰느냐는 건설업을 등록할 때는 물론 등록 이후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다. 건설업을 등록한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매 연말을 기준으로 전후 60일간 실질자본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면 실무자들은 회사의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맞추는 작업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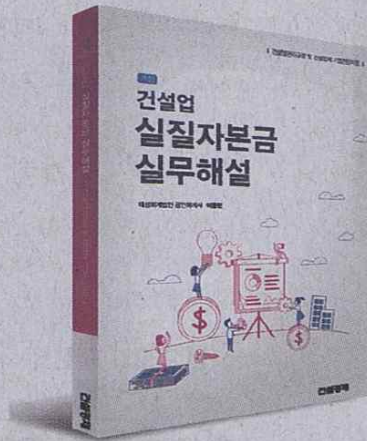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실질자본금 유지는 등록 신청 시점부터 건설업체에 매우 중요한 경영관리 항목으로 꼽힌다.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매년 실태조사 체제'가 도입된다. 그 간 3년 주기적 신고 위주에서 기본 체제가 크게 변화해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건설업체 관리자와 처리기관 실무자에게 필요한 해설이나 분석이 담긴 체계적인 지침서가 없어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실무해설>은 이 같은 현실에서 건설업체 실질자본금 관리자와 처리기관 실무자에 실질자본금의 기본 지식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됐다.

이 책을 작성한 이종헌 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그간 대한건설협회 자문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 상담위원, 건설업체 전문 서비스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손쉽게 실질자본금 관련 업무를 수

건설업 실질자본금 실무해설

이종헌 지음 / 건설경제



건설업 회계·처리 담당자 등 실무자위한 필수 지침서로 자본금 요건, 계산·구조 등 담아 구체적 사례 통해 이해 도와

행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서술했다.

건설업관리규정 및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을 담은 <건설업 실질자본금 실무해설>은 총 9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자본금 요건과 심사 및 진단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에는 재무제표와 회계기준, 자본금 심사 규정과 방법, 실질자본금 계산과 구조 등이 서술했다. 이와 함께 재무제표 계정 항목별 심사 방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마지막 8~9장에서는 건설업 관리규정 및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심사 실제 사례와 실태조사 제출 서류 목록 등을 담아 이 책이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왔다.

우선 이 책은 누구나 실질자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체계와 과정을 간단한 표로 만들어 설명한다. 각 관련규정들을 항목별로 모아 규정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회계지식과 간략한 법률지식을 제시해 초보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한 신규등록 지연 사례, 겸업자산과 겸업부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대기업의 실질자본금 미달 사례, 기업진단이 필요한 상황 사례 등 건설업체 관리자들이 흔하게 범하는 실수와 관리 사례 등을 정리해 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처리기관 실무자들에게는 회계와 재무제표를 쉽게 설명함으로써 심사대상 재무제표와 입증서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 책은 건설업 회계와 세무 실무에 관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심사 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실질자본금 관련 청문 결정과정에서 오류를 예방하고자 하는 처리기관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해설서이자 지침서가 될 것이다.

홍셋별기자 byul0104@